우리금융그룹, 호우 피해 장애인 시설에 기부금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황우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전경애 돌봄타운 원장,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호반건설-LG U⁺,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

호반건설은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반써밋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충전기와 안전 분야에 대한 신기술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장(왼쪽)과 현준용 LG유플러스 EV충전사업단장이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

정하중 한국지멘스 사장, '쿨 코리아' 챌린지 참여

한국지멘스 정하중 사장은 5일 '쿨 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다. 정 사장은 "지멘스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지멘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GC셀, 청년고용 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

GC셀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과 청년 고용 증가 등 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았다. GC셀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GC셀 제임스박 대표(왼쪽)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C셀

스타벅스 코리아, 차별없는 채용… 열린직장 만들어

스타벅스 코리아의 차별없는 채용을 통한 열린 직장문화가 빛났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장수아 인사담당(왼쪽)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죽 쒀서 남 줬던' 키아프, 올해는 다를까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영국의 프랜차이즈 페어인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 9월 6일부터 10일(프리즈는 9일 폐막)까지 코엑스 전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키아프는 이번 행사에 국내 갤러리 약 140개를 포함한 20여개국 약 210개 화랑을 통해 1300여명의 작가 작품을 소개한다. 독일 디 갤러리를 비롯해 최근 용산에 둥지를 튼 일본의 화이트스톤 갤러리 등이 외국 화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프리즈에는 전년과 비슷한 국내외 120여개 갤러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 데이비드 즈워너, 화이트큐브, 타데우스 로팍을 포함 세계 정상급 화랑들이 대거 포진했다. 밀레, 피카소,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루치오 폰타나, 루시안 프로이트, 에곤 실레 등 서양 거장들의 작품도 마스터스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두 개의 아트페어를 같은 공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8만원에서 25만원까지 하는 입장권도 불티나게 팔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김구림 전, 리안갤러리의 이강소 전, 아트선재센터의 서용선 전, 구띠갤러리의 김종숙 전 등 페어 개최 기간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이벤트도 많다.

하지만 한 지붕 두 행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속엔 걱정도 있다. 안방까지 내주었는데 주도권은 프리즈가 쥐자 '죽 쒀서 남 줬다'는 평가가 나온 2022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공간 내 관람 인원에서부터 느껴지는 온도차, 많게는 8000억원으로 추정된 프리즈 대비 약 10분의 1에 불과했던 매출 규모, 주요 판매 작품의 대부분이 외국 작가 작품이었던 현실은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올해는 어떨까. 일단 지난해가 준비 부족 상태에서 치러진 느낌이었다면 금년엔 대비된 흔적들이 엿보인다. 주최 측인 화랑협회는 참여 갤러리들이 추천한 작가 20명을 소개하는 하이라이트와 채색화 특별전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국제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법한 이슈들을 모은 토크도 마련했다. 또 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키아프 플러스'를 키아프의 한 섹션으로 재배치하는 등 나름 차별화를 꾀하려 애썼다.

하지만 프리즈와 체급을 맞추기엔 여전히 부족한 인상이 짙다. 뭔가 풍성해 보이지만 글로벌 위상을 담보할 키아프만의 선명한 색깔은 잘 읽히지 않는다. 문제는 작품이다. 올해도 '장식'에 머무는 얄팍한 출품작들이 주를 이룬다면 미학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 즐비한 프리즈와의 격차는 또다시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막은 올랐고 이번 행사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독사과'를 덥석 물은 것인지는 나흘 뒤면 알 수 있다.

'젊음'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키아프와 페어 참가 갤러리 120개 중 100여개를 아시아 및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갤러리로 채우며 '돈 되는 아시아' 공략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프리즈와의 경쟁 결과에 따라 키아프는 향후 세계적인 페어로 발돋움할 수도, 아니면 외국 유수 페어의 위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키아프는 현재 그 기로에 섰다.

/미술평론가

경제계,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 "소비회복·경기진작 앞장"

상의, 전경련 등 6개 단체 협력
농축산물 상품권 구매 등 추진

한가위 소비진작을 위해 경제6단체가 뭉쳤다. 지역경제, 농어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소비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경제계가 앞장서겠다"며 추석을 맞아 이 같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5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제계,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 발표문'을 읽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 모여 "다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위해 우리 기업들과 경제계가 '실천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임직원들이 국내 가을 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관광지와 지역특산물, 맛집, 우수 숙박시설을 소개하여 임직원들의 지역문화 체험과 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명절 기업 선물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적극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고 직원 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국산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총은 15개 지방경총을 비롯한 78개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과 함께 기업들이 농축수산물 구매, 국내여행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리 농수산물 이용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회원사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무협은 국내 최대 옥외광고시설을 활용해 캠페인 안내광고를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과 대학생 홍보대사를 통해 농축수산물 구매 촉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정용 추석 음식 키트를 6.25 참전용사, 소외계층 등 약 4만명에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로 농축수산물 구매를 권장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국내 여행 독려, 명절선물로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를 통한 우리 농축수산물 보내기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사진)가 4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다음 참여자로 오영식 이브이시스(EVSIS) 대표, 정승원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를 추천했다.

김 대표는 "환경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해서 기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 대표의 캠페인 참여 영상을 공개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최재원, 'IAA 모빌리티' 트렌드 점검

〈SK그룹 수석부회장〉

"다양한 완성차 업체 협력 모색"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이하 IAA)을 참관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2023'은 4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SK온 대표이사도 겸직 중인 최 수석부회장은 이날 폭스바겐과 BMW, 현대모비스 등 IAA에 참가한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모빌리티 트렌드 관련 대화를 나눴다.

최 수석부회장은 "유럽 배터리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사를 포함한 다양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4일(현지시간) 'IAA 2023' 독일 뮌헨 메세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SK온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사업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부음

▲박석만씨 별세, 박원주(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특임교수·전 특허청장)·박천희·박소영·박지영씨 부친상, 박건태·노승구씨 장인상=5일 오전 6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6986-4456

▲정춘자씨 별세, 안계진씨 부인상, 안주원 장원 승원(세미파이브 연구원)씨 모친상, 이백수(피알원 대표)씨 장모상=5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장례식장, 7일 오전 7시30분 031-900-0444.

▲황삼순씨 별세, 종철씨 부인상, 선휘·인한(효성티엔씨 베트남 법인장)·준한(화진데이크로 부장)·종한(에이치케이이사)씨 모친상, 현준(앱솔로지 대리)·준오·근호·지현·주현씨 조모상=5일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55-270-1900